



생각하기에는 소매업장이 안전해 보일지 모른다. 종사자들이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건설현장이나 화학공장 같은 곳들과는 달리 소매업장에서는 눈에 확연히 띄는 안전 위험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소매업 종사자들에게도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위험에서부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기까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주의하는 것이다. 감독자와 종업원이 모두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 수행 방법을 실천한다면, 고통과 비용이 수반되는 부상을 피할 수 있다.

소매업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자는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통로 모서리에 쌓아 두지 않도록 한다.
2. 사람이 다니는 길(바닥, 통로, 계단)은 깨끗이 하여 부스러기, 쓰레기, 쏟아지거나 떨어진 물건들이 없도록 한다.
3. 바닥 매트와 카페트는 주름이나 접힘이 없이 평평하게 하고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한다.
4. 비상구 통로의 장애물은 모두 치운다.
5. 물품은 안정되게 쌓고 손이 쉽게 닿을 수 있게 한다.
6. 진열대, 카운터, 테이블, 바닥 선반 등에 있는 돌출 물체는 제거한다.
7. 난로, 보일러, 전기 시스템 관련 패널 등과 같은 발화기기 주위에는 적어도 80cm 정도의 거리를 띄운다.

상자 절단기 작업 시에는 아래 3 단계 과정에 따른다:

1. 판지를 자신의 몸에 대하여 비스듬하게 놓아서 절단기가 자신쪽으로 직접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다른 손은 판지의 반대편을 잡는다.
3. 천천히 절단하고 나서 판지를 1/4 회전 돌린다. 또 천천히 절단하고 판지를 다시 돌린다.

상자 절단기 날의 상태는 자주 점검한다. 무더진 날에는 힘을 더 많이 가해야 하므로 그만큼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

올바른 들어올리기의 요령

1. 짐의 크기를 가늠해본다. 너무 무거워 보이면, 들어올리기 장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2. 짐을 들고 갈 길에 장애물이나 물 또는 기타 걸려서 넘어질만한 것들이 없는지 확인한다.
3. 짐에 가까이에 발을 딛고 무릎을 굽힌 다음 손으로 단단히 잡는다.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들어올리는데, 주로 다리 근육을 이용해서 한다.
4. 똑바로 들어 올린다. 이때, 짐을 자신의 신체 가까이에 붙이고 몸을 뒤틀거나 돌리지 않는다.
5. 몸을 뒤틀지 말고 걸음을 시작할 때 발을 옮기면서 몸을 돌린다.
6. 짐을 천천히 내려 놓는다. 이때 무릎을 굽힌다. 바닥에 안정되게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에 손을 떼는다.
7. 카트와 바퀴달린 틀은 끌지 말고 밀어서 옮긴다.

안전한 적재를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1. 팔레트는 평평하게 놓는다.
2.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적재용 트럭이나 카트를 이용한다.
3. 적재용 트럭이나 카트에 짐을 실을 때는 통로나 문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싣는다.
4. 빈 상자나 용기는 즉시 파기하여 쌓이지 않도록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1. 통로나 계단 또는 비상구 앞에 물품을 쌓아 두는 것.
2. 상자나 팔레트 또는 기타 물건들을 사다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
3. 적재 시 너무 높이 쌓는 것. 닿기 위해 몸을 뻗치다가 떨어지거나 뺄 수 있다.

수납 적하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1. 선반, 진열대, 기타 물품 또는 파편들을 깨끗이 청소하여 적하장을 청결히 유지한다.
2. 미끄러져 넘어지는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옆질러지거나 젖어 있는 것들을 청소한다.
3. 팔레트 잭은 사용 전에 점검한다.
4. 지면과 적하장 사이를 오갈 때는 계단을 이용한다. 호이스트에 매달리거나 적하장에서 지면까지 뛰어 오르지 않는다.
5. 팔레트 잭이나 지게차에 절대 올라타지 않는다.

